



로버트 하게만
| 수출 세일즈 디렉터



Dynaudio

30년의 역사와 함께 사파이어가 출시되다

인터뷰어 | 김문부 기자

얼마 전 다인오디아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 이벤트가 있습니까.

다인오디오의 3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기념 모델인 사파이어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인오디오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분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의미로 그동안의 디자인과는 매우 다르게 제작했고, 4가지 색으로 1000개만 한정 생산합니다.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파이어를 한정 발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30주년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래서 외양은 물론 색상까지도 그동

안의 기념 모델과 매우 다르게 제작했고,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주기 위하여 1000개 이후에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제품을 한정적으로 소유한다는 느낌을 다인오디오 애호가분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홍콩 오디오쇼에서 사파이어가 공개되어 국내 오디오 애호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파이어의 간단한 특징을 설명해주시지요.

사파이어는 드라이버와 크로스오버에 다인오디오의 최고 모델인 에비던스 마스터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버는 사파이어에

최적화했고 인클로저는 전통적인 다인오디오에 비해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위아래가 언밸런스한 디자인인데, 앞과 뒤를 구분하여 제작하여 공명을 제거했고 쉽게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파이어는 그동안 다인오디오에서 선보였던 디자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면체 인클로저 방식을 채용했는데, 이런 디자인은 사운드 퀄리티를 위한 것입니까.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는 컨피던스의 인클로저와 같이 가능하지만 배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전면 배플을 크게 만들

어 생기는 장점은 소리의 확산에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반사음 주파수를 잘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다인오디오는 심플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사내에 디자이너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팀은 산업 디자이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실제로 관여하는 것은 외부업체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 팀을 운영하기에는 회사가 작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 팀을 가지고 있으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하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사파이어가 출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파이어 재질로 된 유닛이 나온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웃음). 혹시 새로운 유닛을 개발하고 계신가요?

다인오디오가 드라이버 메이커로 유명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돌았나 보네요. 저희는 30여명의 개발팀과 협력하여 다양한 소재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소재가 있으면 적용하고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여 발매해야겠죠. 그러나 드라이버의 소재는 어떤 것이 좋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역사가 140년이고, 스피커가 160년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철에서 하루하루 꾸준히 개량하여 현재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여 만들 수 있었듯, 스피커에서 드라이버의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소재는 30년 전에 이미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동안 이런 소재들을 쓰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단지 그 결점을 기술적으로 꾸준히 조정하여 댐핑 팩터나 파워 핸들링 등에서 기술의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오디오는 소리는 좋지만 구동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은 창립 당시의 제품철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인오디오는 왜곡이 없는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리의 효율이 높고 소리가 쉽게 나면 왜곡이 생기기 쉽고, 반대로 구동하기 어려우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왜곡은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를 개량하여 왜곡을 억제하면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다인오디오 스피커는 구동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인오디오 스피커에는 마크 레빈슨 앰프를 연결해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다인오디오 스피커는 저가형 앰프를 물려도 좋지만 고가의 앰프를 연결할수록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앰프의 특성을 잘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플래그십 스피커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다른 제품으로 다인오디오의 플래그십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크로스오버를 대체하는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에비던스라는 이름으로 10~15년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더 좋은 기술이 적용되면 나오지 않겠습니다(웃음).

사파이어 외에 다른 신제품 출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공개하기 이르군요(웃음). 물론 나오기는 하겠지만 비밀입니다.

다인오디오의 MC15는 아이팟이나 컴퓨터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스피커입니다. 다인오디오에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사회가 변하여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CD나 LP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가고 인터넷이나 MP3 등 디지털 음원이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고성능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인오디오의 하이엔드 스피커의 소리로 충족시켜 주고 싶



30주년 기념 모델인 사파이어

었습니다. 그리고 소스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기기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MC15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멀티미디어 기기를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싼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선택의 범위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문제인 사람들에게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충족할 수 있다면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인오디오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할 계획입니까?

다인오디오는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아이팟 도크 등 작고 예쁘고 다양한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인오디오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이 음악을 듣는 행위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인오디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메이커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다인오디오를 사랑해주는 애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